'90년도 대한기생충학회 춘계 학술대회 참관기

"새로운 장흡충 연구 활발"

류 재 숙

대한기생충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지난 4월 20일 대전직할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회 당일은 봄비가 거리의 가로수를 촉촉히 적시게 내려서 거리는 더욱 깨끗하게 보였다.

의과대학 건물은 병원과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4층에 마련된 학회장에는 편안한 의자와 책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발표를 듣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회원등록에 이어 학회장이신 백영한교수의 인사말이 있었고 곧 연제발표가 시작되었다. 발표된 연제는 오전에 16편, 오후에 7편이었고, 포스터 발표가 9편으로 총 32편이었다.

원충류에 관한 연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연세의대에서는 N.fowleri 감여시 1차 방어기전 세포인 자연살 세포(Natural killer cell)의 활성이 증가된다고 하였고 원광의대에서는 면역억제 처치시 주폐포자충(Pneumocystis carinii)의 감염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을 보고 하였다.

가톨릭의대에서는 MDCK세포의 tight junction이 원충의 도입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며 건국대 생물학과 조명환교수는 AIDS 등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발병되는 Cryptosporidium parvum 감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원충의 단세포군 항체를 생활사의 여러 단계와 반응시켜 생활사 단계중에 항원의 crossreactivity를 관찰하였다.

또 전북대 수의대에서는 각종 동물에서 crypto sporidium sp.의 감염률을 조사 보고하였는데 이 원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역학적 조사와 아울러 증례보고 등을 통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흡충류 중 간흡충에 대한 연제가 제일 많아 여섯편이었는데 고려의대에서는 흰쥐에 간흡충을 중복 감염시켰을 때 담관의 병리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단회 감염과 병리학적 변화가 비슷하고 Russell's

body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부산의대에서는 X-선 조사된 간흡충 피낭유충은 감염초기에 죽거나 담관에 이행한 후 죽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경북의대에서는 간흡충으로 감작시킨 마우스의 복강세포와 혈청은 간흡충에 대한 면역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실험에서 간흡충의 감염을 흰쥐나 마우스에 일으켜서 실험진행을 하였는데 이 동물이 호적숙주가 아니므로 좀더 추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폐흡충에 관하여는 계명의대에서 경북 울진군 및 울주군에서의 감염률을 조사 보고하였다.

이번 학회에서 가장 토의가 많았던 기생충은 Metagonimus sp.로 우리나라에 있는 Metagonimus sp.의 종류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었다.

서울의대에서는 전남 탐진강, 충북 음성군, 강원도 영월, 충북 괴산지역 주민에서 수집한 충체 및 각 지역에서 잡은 민물고기내의 피낭유충을 실험동물에 감염시켜 회수된 충체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는 Metagonimus yokogawai, M. takahashi 및 Miyata형이 있다고 하였으며 원주의대에서는 강원도 섬강을 조사하여 M. takahashi로 추정하였는데 Metagonimus 흡충에 대해서는 여러대학에서 좀더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Metagonimus 흡충의 종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오전의 열띤 토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학회장 근처의 한식집에서 있었는데 이번 학회 준비에 큰 도움을 주신 충남의대 신대환교수께서 제공해 주셨다. 비가 뿌리는 서늘한 봄날에 잡탕찌개를 가운데 놓고 오랜만에 만난 회원끼리 담소하며 즐거운 식사를 하였다.

이어서 오후 연제발표가 있었는데 연세보건과학대에서는 요사이 몇년 사이에 감

이번 학회에서는 흡충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특히 장흡충 및 원충류에 관한 연구도 늘어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염된 환자가 늘고 있는 호르텐스 극구흡충(Echinostoma hortense)의 피낭유충을 강원도 섬강의 버들치에서 조사하였다.

조충류에 대해서는 중앙의대 조승렬교수가 보고하였는데 유구낭미충 낭액중 150 KDa에 대한 단세포군 항체를 다른 조충 및 흡충류 추출액과 반응시킨 결과, 이 항원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150KDa항원은 유구낭미충 낭액중 특이항원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것이 뇌유구낭미충증 환자의 진단에 이용되고 있는 ELISA법의 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되었다.

충북의대에서는 도축장 돼지 간에서 낭미충 감염률을 조사하였는데 1%가 감염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충남의대에서는 담수어에 기생한 Acanthocephala의 형태를 관찰 보고하였다.

증례보고는 2case가 있었는데 서울의대에서는 국내에 유학중인 자이레인에서 babesiosis를 발견 보고하였으며, 한림의대에서는 인체 복강내에서 Fasciola sp.를 발견 보고하였다.

구연발표가 끝나고 포스터 발표에 대해 회원들의 참관이 있었는데 포스터를 준비한 회원은 포스터 앞에 서서 다른 회원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포스터 발표후 대덕단지내 럭키 중앙연구소의 견학이 있었다.

이번 학회는 예전의 춘계학회와 달리 학교별 연제수의 제한이 없었으므로 연제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것은 매년 추계학회의 시간적 부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이번 학회의 연구대상 기생충별로는 흡충류에 관한 것이 반정도를 차지하여 다른 학회때와 비슷하였으며 그중 우리나라 3대 중요 흡충인 간흡충, 폐흡충, 요꼬가와 흡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 증례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새로운 장흡충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원충류에 관한 연구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임을 알수 있었다.

〈필자=한양의대 기생충학교실〉

금연 캠페인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

• 한국건강관리협회 •